

사장 후보자 이영준이 시민, KBS 구성원의 물음에 답합니다!



■ 지원 동기

- KBS 사장에 지원하시는 이유를 자신만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십시오.

⇒ 1991년 PD로 입사 후 30년을 오로지 프로그램만 보고 열정 하나로 본질에 충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공영성 높은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입사30주년을 맞아 방송사의 핵심인 콘텐츠 제작의 밑바닥부터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경험하며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파악하고 여러 후배들과 스킨십도 나누며 젊은 세대들의 고충도 들으며 소중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KBS에서 누구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쌓았습니다. 교양에서 시작해 편성, 기획제작, 다큐, 보도, 예능, 지역, 전략/정책, 글로벌 국제협력까지... KBS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경험했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 <TV는 사랑을 싣고>, <TV, 책을 말하다>, <파워인터뷰>, <TV회고록 울림>, <특명 공개수배> 등

인기프로그램들을 제작했으며 제작 프로그램 중 다수가 신규런칭 프로그램이라 기획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큰 자산이라 자부합니다.

젊습니다.

제가 보임을 받는다면 역대 가장 젊은 KBS의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가 약동하는 조직으로 KBS의 DNA를 바꾸려면 젊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 KBS는 파격적 혁신과 리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념을 넘어, 역량을 넘어, 직종을 넘어, 장르를 넘어, 각자의 개성들을 만발하게 하며 창의의 꽃을 피우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 훌륭히 수행해 내겠습니다. 감히 KBS 전 직종을 아울러 가장 많은 직원들이 미래를 담보하고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리더로 생각하는 후보라 외람되게 자평합니다.

- 사장으로서 반드시 실천할 핵심 미션을 3가지 이내로 말씀해주십시오.

⇒ 젊은 KBS, 강한 KBS, 공정한 KBS!

1. 한국의 대표공영방송 KBS! 대한민국의 등대가 되겠습니다.
2. 공정과 공영! 오직 국민 여러분만 생각하겠습니다.
3. 콘텐츠의 중심 KBS!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로 도약하겠습니다.

■ 공영방송의 독립성

- KBS 이사, 사장 선임제도와 관행이 가진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KBS는 국영방송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의 수신료가 근간이 되는 공영 방송입니다. 이사 선임에서 정치권의 직접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율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새로 만들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KBS를 대표하는 사장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KBS를 이끌고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능력과 비전이 탁월해야 합니다. 상기한 대로 구성한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에 더해 모든 선거가 그러하듯 사원들의 직접 투표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들을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 자리, 구성원들의 의사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 정치 권력이 KBS 방송이나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려 할 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나 시스템을 말씀해주십시오.

⇒ 진보성향의 국민들도, 보수성향의 국민들도 또 중도성향의 국민들도 그 누구나 KBS에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냅니다. KBS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완벽히 독립해 우리만의 단단함으로 오직 시청자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KBS를 책임지게 된다면 취임 후 즉시 취임사를 통해서건 기자회견의 자리를 빌어서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여타 어떠한 형태의 공영방송의 보도와 제작에 영향을 끼칠 외부적 개입이나 간섭 등을 단호히 배격하겠다는 선언. 오로지 KBS의 보도와 프로그램은 소중한 수신료를 납부해 주시는 국민들 시청자들을 위한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단호히 밝힐 것입니다. 또한 KBS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감시와 비판에 매의 눈을 가지고 주저함이 없을 것이며, 총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눈높이를 동시에 가지는 겸허한 공영방송이 될 것임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는 물론이고 모든 직원들이 이를 모두 공감하고 실천하겠다는 사원 전체의 의지를 담은 선언서에 서명하고 이를 위반 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저널리즘, 신뢰도

- 다매체 시대, KBS는 저널리즘의 표준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KBS 저널리즘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하시겠습니까?

⇒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등대 KBS! 그 환골탈태의 첫 걸음으로 저는 과감히 KBS Future(가칭)를 발족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차대한 어젠다와 이슈들을 각계의 최고 전문가 그룹들로 구성된 KBS Future에서 논의 후 엄선하는 구성체입니다. 제작과 보도가 연계해서 Future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정된 미래의 어젠다들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방송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스튜디오, 국민대토론회, 보도 등을 연계해 솔루션을 위한 집단의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하버마스가 주창한 ‘사회적 공론장’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입니다.

- 2021년 시행된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참가자들은 차기 사장이 추구해야 할 외부 과제로 'KBS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66.9%)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KBS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

정치/자본 양대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엄정중립하고 날카로운 보도와 탐사 저널리즘, UHD시대에 걸맞는 BBC에 버금가는 수준의 고품격 문화/문명 다큐멘터리, 국민통합을 이끌고 세대를 아우르는 세련된 형식의 교양, 예능 프로그램 등의 개발. 우리의 내부 저력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논쟁적 이슈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공영방송에 걸맞는 내공과 실력으로 만든 탐사저널리즘을 강화하고 적극 방송하겠습니다.

- KBS 저널리즘의 방향성과 관련해 '균형성·중립성'과 '진실 추구'의 가치는 종종 충돌하며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두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해주십시오.

⇒ 균형성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과 진실 추구가 충돌하는 가치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KBS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은 늘 진실되고 믿을 수 있다는 가치는 바로 균형성, 공정성, 중립성이 맞습니다. KBS는 여타 언론의 말초적, 표피적, 감성적 접근과는 차별화된 본질에 대한 추구를 해야 합니다. 본질을 보고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면돌파를 함에 있어서 선입견이나 개인의 호불호를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기자와 PD 본인의 눈높이가 아니라 시청자의 니드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 못지않게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뉴스리포트이든, 토론프로그램이든, 다큐멘터리든 본질에 가장 접근한 전문가를 섭외해 낼 수 있고, 본질에 가장 충실한 구성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경쟁력 강화

- 2021년 한 해만 제작비에 5천 5백억 원을 쏟아부은 넷플릭스, 수용자의 세분화된 니드를 충족하는 유튜브 등 콘텐츠 시장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미디어 KBS 콘텐츠의 바람직한 방향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 상기한대로 1TV의 미래어젠다 설정기능과 본연의 역할. 타 상업방송들이

엄두를 못 낼 KBS만의 품격 있고 수준높은 콘텐츠 제작. 예능/드라마는 경영 계획서 참고 바랍니다.

- 부족한 제작비 때문에 일선 PD들은 제작이 아닌 협찬, 편당에 더 많은 공을 들이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협찬 편당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찾아보면 공영적 성격의 착한 협찬도 많습니다. 사회에 긍정적 영향도 미치고 수익원도 되는 소위 ‘착한 협찬’은 가능합니다. 제작비를 근본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경영계획서 참고)

■ 조직문화 개선 및 조직 혁신

- KBS 내에는 세대, 직종, 정치적 신념, 노동조합 등 다양한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사장으로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갈등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취임하면 하나되는 KBS, 약속하는 KBS, 창의로 가득찬 KBS로 조직의 DNA를 근본부터 바꾸는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진영으로 나뉘어 내편에 대한 확증편향과 상대에 대한 불신으로 갈라진 회사의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되찾아 창의를 만발하고 상호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각 직종별 직능대표, 노조를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직종을 넘어 일 잘하는 사람, 창의적인 직원이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정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파사현정의 진정성 하나로 제가 사랑하는 조직 KBS에 봉사하겠습니다.

- KBS의 의사결정은 빠르고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신주의, 조직 이해 대변 문화 등으로 신속한 결정과 실행이 쉽지 않습니다. KBS의 이런 의사결정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사안별로 결재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재라인을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보신주의의 타파는 우리 조직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역시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공동체 분위기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올해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구성원들은 ‘직무 재조정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공감(77.1%)하면서,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역량 집중업무를 선별해

야 한다”(70.6%)고 답했습니다. 간소화 또는 효율화를 추구할 업무와, 역량을 집중하여 강화할 업무를 각각 판단 기준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는 콘텐츠 제작을 업으로 가진 회사입니다. 그것도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콘텐츠입니다. 통상적인 루틴으로 잘 나가고 있는 관리, Maintenance 등은 인적 구성이나 시스템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전략콘텐츠 기획과 개발, 공영콘텐츠 기획과 개발 제작 등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결국은 경쟁력이 뛰어난 구성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 자체 설문조사에서 구성원 80.6%는 “KBS 경영진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경영진이 적절한 과업목표를 제시하지 않는다”(52.1%),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45.6%)고 답했습니다.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과업 목표와 성과 보상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 지금 KBS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상위급 경쟁력을 가진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데 있습니다. 예능/드라마의 속성상 공영방송이라는 틀 안에서만 자유경쟁을 하고 창의를 하고 정해진 대우를 받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유출되는 기름처럼 이렇게 상위 퍼포먼스 인력들이 KBS를 빠져나가는 상황을 대책 없이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 인력구조 개선 및 채용

- 역삼각형 구조의 불균형한 KBS 인력구조 속에서 임금, 업무 강도 면에서 불공정과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문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를 어떤 정책으로 풀겠습니까?

⇒ 지금 외부의 자유경쟁시장에서 킬러콘텐츠를 생산해내고 높은 화제성을 유발하고 있는 창작자/제작자의 거의 8할 이상이 KBS 출신입니다. KBS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가장 파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튜브 등 다양한 멀티플랫폼에서의 활약도 보장할 것입니다.

- 만성적인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할 우수한 신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하십니까?

■ 수신료 및 경영 철학

-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실천 가능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 수입원 발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 1TV의 공영적 충실함과 탄실함이 쌓여 국민들로 하여금 진영을 넘어 1TV를 필요한 방송, 유익한 방송, '국가의 중요한 그 무엇!' 즉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등대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KBS를 위해 서라면 수신료를 기꺼이 낼 것이며, 또 필요하다면 흔쾌히 수신료 현실화도 수용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 임기 내 반드시 완성하고자 하는 단기 공약은 무엇이고, 임기와 관계없이 시작해야 하는 중장기적 공약은 무엇입니까?

⇒ 콘텐츠 제작 시스템, 예능/드라마 시스템 개혁 (경영계획서 참조)

1TV와 KBS Future의 결합으로 사회적 공론의 장 역할 확실히 구축
이를 기반으로 수신료현실화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법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직문화를 능동과 열정, 창의와 신명으로 바꾸겠습니다.

미래방송센터를 임기내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 정책 및 지역국 경쟁력 강화

- KBS 지역 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 공생과 동반성장입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단순히 방송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지역문화허브 역할 가능합니다.

- 지역국 기능조정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정된 자원 속 극심한 재정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지역국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국이 자체생산 방송 비중이 낮다고 해서 폐지를 검토한다던지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국은 그 지역에서 단순한 방송국 이상의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량적 평가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문화허브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KBS의 전국방송망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 지역에서 생산하는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그를 뒷받침할 자원 마련 계획을 밝혀주시시오

⇒ 지역이 강하기 위해서는 당위적으로 본사가 강력해야 합니다. 제가 경영 계획서에서 밝힌 1TV 강화방안을 드라이브를 걸어 지역도 해당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좋은 콘텐츠를 충분한 예산과 함께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총국의 경우 본사에 버금가는 수준의 제작물을 기획하고 방송하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 7시 뉴스가 정착됐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주 의존 확대, 지역 뉴스 대신 전국 뉴스의 비율 증가, 아이템의 연성화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 지역 뉴스가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와 지향점,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말씀해주시시오.

⇒ 이것은 지역보도국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본사에 버금가는 수준의 뉴스를 제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개선안을 받아보고 타당성이 충분할 경우 1차로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지역민의 평가가 확연히 좋아질 경우 2차 인력 지원 또는 신입사원 선발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공영미디어 역할 및 인프라 투자

- KBS가 올림픽 방송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미디어로서 올림픽 및 대형 이벤트 방송에 대해 정책 방향, 선택 잣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시오.

⇒ 국가적 관심사로서의 국제 이벤트에 대한 공영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은 BBC를 비롯 적잖은 세계 공영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계권 vs 광고수익 등을 정치하게 살핀 후 탄력적으로 중계권 확보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상업방송들과는 다른 잣대로 KBS에 중계권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장비와 시설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인프라가 노후화되는 반면, 이에 대처할 자원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 부문의 인프라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지 이유와 함

께 밝혀주십시오.

⇒ 이제는 미래방송입니다. KBS의 흠어져 있는 개별 방송/인터넷/모바일 플랫폼을 통합 운영하여 콘텐츠를 배포함으로써 업무/인력 효율성 개선과 유연한 워크플로우 적용 가능한 미래통합형 구조 구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 KBS방송국을 만들어 KBS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KBS에 대한 호감도 상승을 꾀하겠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예로 들면 나이키는 혁신기술을 매우 잘하는 기업으로 이런 시도들이 젊은층에 어필하여 유사한 업체인 아디다스와 매출액 차이가 큼니다.

■ 비정규직, 젠더

- 오래 지적돼 왔던 방송사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 공존과 소통 포용, 파트너십입니다.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라는 인식, 부리는 아랫사람이 아닌 같이 일하는 동료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안정된 상태로 창의의 동반자로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 조건 등을 재점검하고 역량에 맞는 합리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 사내 성 비위 등 젠더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시대에 부합하는 젠더 의식에 걸맞도록 콘텐츠를 제작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이런 논의 자체가 이미 낡은 것일 수 있을만큼 젠더이슈와 성평등 이슈는 이제 당위의 문제입니다. 성 비위에 관해서는 그 어떤 비위 사안보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의지에 의한 지속적 비위는 발견되는 즉시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하겠습니다. 미래 출산율, 경력단절 여성 대책, 사회적 성평등 인식 제고 등의 어젠다들을 편성목표 속에서 일정 쿼터를 두고 끊임없이 이슈화하고 의제화하겠습니다.

- 모든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는 공영미디어로서 KBS는 장애인, 노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공영방송의 기본책무입니다. 현재 사랑의 가족을 전면 쇄신하여 상징성을 더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며, 편성시

간도 공격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관련된 특집을 공영콘텐츠본부가 주축이 돼 수시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